

# 기분은 여배우? 기분은 아이돌?

~~아자메의 여율이 한국의 텔레비전국의 취재를 받았습니다~~

## 武雄河川事務所 最近の話題

태풍의 영향이나 이슬비 내리는 7월 16일 (목)에, **한국의 텔레비전국이, 아자메의 여율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촬영** 때문에, 취재에 방문했습니다. (방영은 11월과의 일, 유감스럽지만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4월에 제7회 세계수 포럼이 개최된 적도 있어, 최근 시청자로부터의 **수질환경경계**에의 요구가 높다는 일입니다.

그 기운안, **첨예적인 사례이기도 한 일본의 아자메의 여율에 흥미를 가졌다**는 일로, **「현지 주민이 협동하고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에 몹시 놀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지쪽의 소리나 하천 관리자인 국토 교통성의 코멘트를 받음 싶다는 일로, 도중 몇



취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긴장했습니다. (시간의 사정으로  
컷 되었습니다만)



한번 더  
조개를  
배달시키는  
곳(중)을



아자메의 회의 대초 전 회장  
텔레비전 카메라의 전에서도  
당당한 대답



### 以下日本語バージョンです

## 気分は女優？気持ちはアイドル？

～アザメの瀬が韓国のテレビ局の取材を受けました～

## 武雄河川事務所 最近の話題

台風の影響か小雨降る7月16日(木)に、**韓国のテレビ局が、アザメの瀬に、ドキュメンタリー番組の撮影**のため、取材に訪れました。(放映は11月との事、残念ながら見られません)

韓国では、今年4月に第7回世界水フォーラムが開催されたこともあり、最近視聴者からの**水環境**へのニーズが高いとの事です。

その気運の中、先鋭的な事例でもある日本のアザメの瀬に興味をもったとの事で、**「地元住民が協働して管理を行っている」**事に大変驚かれています。

地元の方の声や河川管理者である国土交通省のコメントを頂きたいとの事で、途中何度か外部の音や声の影響で取り直しがあったものの、無事に終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取材を受けたのははじめてです。  
緊張しました。(時間の都合でカット  
されましたが)



もう一度貝  
を取るところ  
をお願いします。



アザメの会の大草前会長  
テレビカメラの前でも堂々とした受  
け答えでした。

